

중소기업 월급, 대기업 절반 수준

통계청, 지난해 평균 월급 281만원... 100명중 16명 월 85만원 미만

지난해 임금근로자가 벌어들인 한 달 소득은 평균 281만원이었다. 100명 중 16명은 월 85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달동안 일해서 벌 소득은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일자리행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근로자는 월평균 281만원(세전)을 벌었다.

이들을 한 줄로 늘어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09만원으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 격차는 72만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중위소득의 50% 이상~150% 미만 구간은 전체의 48.9%였다.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31.0%, 50% 미만은 20.1%로 집계됐다.

소득구간 별로는 '15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한 근로자가 25.6%로 가장 많았다.

월 85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도 16.4%에 달했다. 최저 임금(2017년 시간당 6470원)으로 월급(월 209시간 기준)을 환산하면 135만2230원을 받는다. 100명중 16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셈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월평균 250

만원 미만 일자리에 58.5%가 몰려 있었다. 연령별 평균 소득은 40대(341만원), 50대(318만원), 30대(306만원), 60세 이상(186만원), 29세 이하(182만원) 순이었다. 이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20년 이상 근속자의 월평균 소득은 647만원에 달했지만 1년 미만은 166만원에 그쳤다.

성별과 소속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남성의 평균 소득이 327만원으로 여성(209만원)보다 118만원 많았다. 임금 격차는 1.56배다.

남녀 평균소득 차이는 50대가 185만

원으로 가장 컸다.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474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224만원보다 250만원 더 많았다. 임금 격차(2.11배)가 두 배 넘는다.

직원 수가 많은 일자리일수록 평균 소득도 높아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400만원 받았다.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268만원, '50인 미만'은 203만원이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중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59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137만원으로 19개 업종 중 가장 낮았다. /뉴스



카카오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카카오광고' 플랫폼 공개 테스트(OBT)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광고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으며 카카오 계정으로 쉽고 편리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별도의 광고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함께 계정을 운영할 관리자와 멤버를 초대할 수 있다. 광고계정 등록이 완료되면, 원하는 광고 형태를 선택하고 캠페인 목적에 맞는 이용자 타겟과 예산, 일정 등을 설정해 실제 광고를 집행하게 된다.

카카오광고는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활용해 해당 광고에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고객을 찾아 브랜드를 노출해 준다.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다음 등 카카오 서비스 사용성, 콘텐츠 구독 패턴 등 사용자 개개인의 관심사와 행동 정보를 분석해 정밀한 모집단 추출과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예를 들어 평소 뷰티에 관심이 많고 결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2030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마케팅 캠페인을 설계하고자 할 때, 자사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친구 관계인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고객층으로 확대해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며 "나이가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고를 설정, 광고 메시지를 각각 차별화해 메시지 광고를 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카카오는 향후 매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상품 홍보 쿠폰 메시지를 발송해 즉각적인 방문과 구매를 유도하는 등 위치와 지역을 바탕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캠페인 결과나 플러스친구 분포도 등 광고 집행 결과에 따른 카카오 인사이트 리포트도 제공해 보다 효과적인 캠페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여민수 카카오 광고사업부 총괄 부사장은 "광고주들이 원하는 마케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카카오프렌즈를 더욱 더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전북지역 인력양성계획 심의의결

전주상의인적자원개발위, 위원회 회의 개최

전북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호 전리북도 정무부지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21일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고광훈 지청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양성모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도 공동훈련센터 선정결과 및 전북지역 인력양성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2018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을 운영할 전북지역 공동훈련센터는 지난 10월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접수 받았으며 분야별 전문가 8명의 심사위원의 서면 및 현장 심사 결과 대한상

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캠퍼스종합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가 선정됐다.

이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전북지역 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NCS 기반을 토대로 기계, 재료, 식품, 경영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설될 예정이며 3D프린팅응용 금형디자인,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자동화기술, 4차산업 3D프린터·드론 기계부품 개발자 양성과정, 식품가공 운영 실무과정 등 총 83개 과정에 2,602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 맞춤형 훈련을 원하는 사업주는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의뢰하여 상시수요조사를 통해 훈련센터와 연계한 수시 훈련과정 개설로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다. /김민근 기자

벤처업계 "홍중학 장관 임명, 중기정책 본궤도 기대"

벤처기업협회는 21일 발표한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과 관련 "중소벤처기업 정책개발과 지원체계의 가동에 분개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협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정책을 총괄하는 건트를 타워인 중기부 장관의 오랜 공석으로 인한 업계의 우려와 정책 지연상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회는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홍 장관에게 기대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협회는 "(현재 대한민국은)고용·인구·수출의 3대 절벽과 저성장·양극

화·노령화의 구조적 문제로 역동성을 상실하며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선순환 혁신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민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민간영역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벤처투자·회수시장 활성화, 창업안전망 구축과 공정거래 확립 등의 필수 선결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여 '혁신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뉴스

직장인 61% "사용 못한 연차 보상 못받아"

직장인의 10명 중 8명은 아직 올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767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차 소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사용한 직장인은 22.3%에 불과했다. 여성(27.1%)이 남성(19.6%) 보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비율이 높았다.

기업형태별로 외국계기업(32.1%)이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기업·공공기관(31.3%) ▲대기업(26.4%) ▲중견기업(26.4%) ▲중소기업(19.3%) 등의 순이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비중이 가장 높

은 직군은 주임(29.4%), 대리(28%), 부장 이상(25%), 사원(20.7%), 과장(19.5%), 차장(15.7%) 등으로 분석됐다.

올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50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복수응답)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39.4%)가 가장 많았다. '업무가 많아서'(37.9%), '연차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내 분위기 때문에'(27.5%), '연차를 쓸 만큼 특별한 일이 없어서'(19.5%), '연차보상비를 받기 위해'(9.2%) 등의 응답도 있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현금'(86.5%)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AI 기반 카카오프렌즈 광고 플랫폼 공개테스트 실시

카카오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카카오광고' 플랫폼 공개 테스트(OBT)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광고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으며 카카오 계정으로 쉽고 편리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별도의 광고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함께 계정을 운영할 관리자와 멤버를 초대할 수 있다. 광고계정 등록이 완료되면, 원하는 광고 형태를 선택하고 캠페인 목적에 맞는 이용자 타겟과 예산, 일정 등을 설정해 실제 광고를 집행하게 된다.

카카오광고는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활용해 해당 광고에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고객을 찾아 브랜드를 노출해 준다.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다음 등 카카오 서비스 사용성, 콘텐츠 구독 패턴 등 사용자 개개인의 관심사와 행동 정보를 분석해 정밀한 모집단 추출과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예를 들어 평소 뷰티에 관심이 많고 결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2030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마케팅 캠페인을 설계하고자 할 때, 자사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친구 관계인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고객층으로 확대해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며 "나이가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고를 설정, 광고 메시지를 각각 차별화해 메시지 광고를 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카카오는 향후 매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상품 홍보 쿠폰 메시지를 발송해 즉각적인 방문과 구매를 유도하는 등 위치와 지역을 바탕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캠페인 결과나 플러스친구 분포도 등 광고 집행 결과에 따른 카카오 인사이트 리포트도 제공해 보다 효과적인 캠페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여민수 카카오 광고사업부 총괄 부사장은 "광고주들이 원하는 마케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카카오프렌즈를 더욱 더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3분기 해외서 굵은 카드값 5조

여름 휴가철 등 해외로 나간 여행객 증가 주요인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굵은 카드사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3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 7~9월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카드 결제금액은 43억8700만달러로 2분기(41억8300만달러)보다 4.9% 증가했다.

올 1분기(40억2300만달러)에 이어 3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세운 것이다. 3분기 사용액을 원화로(분기 중 평균 환율 1132.5원)로 환산하면 약 4조9682억원에 달한다. 원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해외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것은 해외로 나간 여행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3

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70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5만명)보다 14.8%(96만명) 급증했다. 달러와 대비 원화가 강세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 수는 1430만 4000장으로 2분기보다 9.3% 늘었다. 카드 한장당 사용금액은 평균 307달러로 2분기보다 4.1% 올랐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 결제액은 상승 전환됐다. 3분기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실적은 20억9500만달러로 2분기(18억7600만 달러)보다 11.7% 증가해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23.8% 급감한 수준을 나타냈다. 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여파가 3분기까지는 이어졌다는 얘기다. /뉴스

기사제보 288-9700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p>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p>
--	---